



시국기도회 동참자들이 7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참회와 연비의식을 마친 후 탑돌이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무명 일깨우자”

시국법회추진위, 조계사서 108시국기도회...300여 사부대중 참석

이명박 정부의 무명을 일깨우는 ‘국가권력의 참회와 생명·평화를 발원하는 시국기도회’가 7월 1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성료됐다.

시국기도회에는 시국법회추진위 공동추진위원장 수경 스님을 필두로 실천불교전국승가회장 법안, 조계종 교육부장 최후, 총회의원 도문, 정법 스님 등 스님들과 경찰수배로 조계사 농성중인 광주광역시민대책회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을 포함한 국민대책회의 지도부 7명이 참석했다. 300

여 사부대중은 비가 오는 와중에도 ‘춥불 민심’이 꺼진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게 자비의 관용이란 기회를 주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날 수경 스님은 시국법회를 통해 “춥불이 사그라지는 듯하자 오히려 국민을 수배자로 만들고 종교편향으로 정권 지지기반을 다지는 대통령의 뒤를린 마음을 그냥 뒤서는 안된다”며 “먼저 우리가 참회의 수행과 정진으로 세상을 삼독으로 물들이는 이명박 정부를 깨우쳐주자”고 말했다.

이날 시국기도회는 스스로를 참회함으로 정부의 무명을 씻는 108회가 108참회문 낭독에 맞춰 진행됐다. 이어 광주광역시민대책회의 지도부를 포함한 사부대중의 연비의식과 대웅전 탑돌이도 진행됐다. 추진위는 이날 기도회를 시작으로 7월 23일 정호승 시인과 가수 안지환씨가 참여하는 문화제를 개최하며 7월 30일 스님과 신도들이 모여 토론으로 시국을 성찰하는 대중공사를 열 계획이다.

글=노덕현, 사진=박재원 기자

‘10·27법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8월말 공포 예정...미흡한 역사교육관 지원 규정 등 과제로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 피해 스님과 불교계의 명예회복 및 피해보상의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7월 15일 10·27법난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10·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는 국방부차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국가보훈처 차장, 경찰청 차장,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촉한 불교계 인사 등 11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들 위원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피해자등여부심사분과위원회’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의료지

원급판정분과위원회’ 등 분과위원회는 각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불교계 경험자와 3,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키로 했다.

위원회 사무직원인 간사 역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며, ‘필요한 직원’ 역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원회에서는 피해 스님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와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 등도 협의하게 된다.

국방부와 조계종간의 4개월여간 협의 끝에 마련된 시행령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다. 국방부가 시행령안을 공포하면 피해 조사 등 법난의 실제적 진실규명과 보상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전망이다.

10·27법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법타 스님은 7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불교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한 부분은 환영할만 하지만, 법난의 진실규명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법타 스님은 위원회 구성과 관련, “정부위원의 경우 현직 차관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중립성을 고려할 때 각 부처에서 추천하는 차관급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이어 “사무국 직원의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스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전문성을 가진 불교계 인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타 스님은 핵심 조항인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행사 및 역사교육관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스님은 “역사교육관 건립이 의뢰비 지원처럼 구체화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자 및 명예회복 대상 스님 153명 가운데는 입적하신 분들이 많아 개인 보상 보다는 종단 차원의 명예회복과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역사교육관 건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료전시관, 영상자료관, 교육관, 사무공간 등이 들어설 역사교육관 건립은 수 백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10·27법난특별법제정추진위는 구체적인 활동 결과 법령의 한계로 명예회복과 역사교육관 건립이 어려운 경우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우 기자

이동성폭력 예방 캠페인 7대 종단·여성부 ‘맞손’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와 여성부는 7월 22일 ‘우리아이 지키기’ 캠페인 협약을 맺고 아동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 캠페인은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부와 관련 부처가 4월 30일 발표한 ‘아동·여성 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

여성부와 KCRP에 소속된 불교, 개신교, 가톨릭 등 7대 종단은 협력체제를 강화, 아동성폭력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KCRP는 1000만인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각 종단 홈페이지의 아동안전수칙 게재와 성폭력피해 아동 치료센터인 해바라기 아동센터 정보제공,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강사양성 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02)2075-4742

노덕현 기자

불교연석회의 ‘종교편향 종식’ 건의

국무총리실에 건의문 전달

‘이명박 정부 종교편향 종식 불교연석회의’(공동대표 삼입위원장 손안식)는 7월 1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공직자 종교편향을 금지하는 법 제·개정과 관련 공직자 문제 등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국무총리실에 전달했다.

국무총리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임장수 공동대표(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장) 등 6명의 공동대표들은 ▲공무원 관련법에 직무관련 종교 편향 금지조항과 벌칙조항 신설 ▲최근 공직자 종교편향에 대한 정부의 진실한 공개사과 관련 공직자 문책 ▲편향행위 예방을 위한 정부, 공공기관 종교시설 및 활동현황 조사 ▲국민화합을 위한 촛불집회 구상자 석방과 수배해제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건의문 요구사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 후 국무총리 명의로 불교연석회의에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7월 1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종교편향 관련 건의문 발표 후 구호를 외치는 불교연석회의의 공동 대표들.

진공청소·물걸레청소·구석청소 마미로봇이 한방에 다 한다

힘 들이지 않고 청소하는 물걸레 로봇청소기 **마미로봇**

대리점 문의 / 제품 구입 1588-7402

가격 : ₩ 275,000

www.mamirobot.co.kr

Mamirobot (주)경인메카트로닉스 NAVER 지식iN 마미로봇

남북관계 개선 촉구 평화재단 성명 발표

평화재단(이사장 범윤이)은 7월 13일 ‘7·11 금강산 박왕자지 피살’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평화재단은 박왕자지 죽음에 대한 애도와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평화재단은 논평에서 “뜻밖의 변고를 당한 박왕자지와 남은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남북은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화재단은 또 “인도적 차원의 민간지원 사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덕현 기자



경기여고에 세워진 석등(왼쪽)과 ‘불교재단’ 표지석.



경기여고 불교문화재 제자리 찾아

불교재단 표지석 등 복구

훼손 논란과 함께 종교편향 사례로 불거졌던 불교재단 표지석 등 경기여고 불교문화재가 원위치에 복구됐다.

문화재청(청장 이근우)은 “다리가 파손된 석등은 접착 복구하고, 불교재단 표지석의 받침석을 새로 제작한 것을 포함해, 경기여고 내 석탑 등 석조물을 7월 13일 설치완료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동섭 기자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제천불교여자전문대학

- 비구니 통학 강원 -

◆학장 : 석도기

(사)한국불교금강선원은 제천 금강사를 창건하여 여성불자 교육도량으로 부설하고 아래와 같이 통학 학인을 모집합니다.

◇교육시간 :

매월 음력 10일 오후 2시 ~ 음력 11일 정오 12시

매월 음력 20일 오후 2시 ~ 음력 21일 정오 12시

◇개강일 : 음력 7월 20일 (양력 8월 20일)

◇교육내용 : 전통강원에서 교육하는 사미, 사집, 사교, 대교 과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며 의식교육을 필요에 따라 지도하고 특강을 통해 부족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기간 : 2년(강의를 녹음한 통신교육도 가능함)

◇강주 : 활안 한정섭스님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전화 겸 팩스 043)646-3800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대학장 : 호암 ◆대학원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제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학원

◆원장 : 활안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08년 9월 8일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불교예술대학

◆교수 : 해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보존회 이수자 해사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불자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타르는 법 등 기초교육

◇원서교부 : 2008년 8월 1일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7시

◇개강 : 2008년 9월 4일 목요일